

# 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주장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 1. 시작하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하고 논의하여 왔지만, 발표자에게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 ① 훈민정음 명칭에 대한 의문

문자 이름을 왜 ‘훈민정음’이라고 했을까? 이 명칭 중에서 ‘훈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음’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자의 명칭에 ‘文’이나 ‘字’를 붙이지 않고 왜 ‘音’을 붙였을까?

② 훈민정음 서문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에서 왜 ‘語音’과 ‘文字’를 대비시켰을까? 즉 ‘나랏말싸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할 썻’에서 ‘나랏말싸미’와 ‘文字’를 왜 대비시켰을까? ‘나랏말싸미’는 ‘소리’이고 ‘文字’는 글자인데 그 당시에 ‘소리’와 ‘문자’를 분명히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랏말싸미’와 ‘문자’를 대비시켜 놓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③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象形而字倣古篆’이라고 하였는데, ‘상형’에 대해서는 이미 잘 밝혀져 있지만, ‘字倣古篆’ 즉 ‘글자가 옛날 전서를 본받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 설이 아직도 분분하다. 과연 ‘字倣古篆’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발표는 이러한 의문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발표자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글이 있으나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sup>1)</sup>

---

1) 발표자의 기준 논문은 다음과 같다.

洪允杓(2005),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 46.

## 2. ‘訓民正音’의 명칭

### (1) ‘訓民’의 의미

‘훈민정음’과 ‘정음’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是月 上親製 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시었다. 그 글자는 옛 전서를 본뜨고 초 중 종성을 나누었는데 합한 뒤에야 글자가 이루어진다. 무릇 한자와 우리나라 말을 다 능히 적을 수 있으니, 간단하고 요약되나 전환이 그지없다. 이를 훈민정음이라 한다.) <세종실록 세종 25년(1443년) 12월 계해조>

“癸亥冬 我殿下 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 訓民正音”(계해년(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例義를 들어 보이시었다.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정인지의 서문>

訓은 ㄱㄴㄷ ㅅㅇ 民은 百姓이오 音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 ㄱㄴㄷ치시는 正音 소리라 <1446훈민정음언해본,1a>

正音은 正音 소리니 우리 나랏 마를 正히 받드기 올히 쓰는 그릴 ㅅ 일후를 正音이라 ㅎ느니라 <1459월인석보1:釋序5b>

정인지 서문에 보이는 ‘정음’과 석보상절에 보이는 ‘정음’은 모두 ‘훈민정음’을 말한다. ‘정음’이란 용어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여덟 곳에 보이는데, 모두 ‘훈민정음’을 지칭하고 있다. 물론 ‘정음’이란 단어가 음악에서의 ‘정음’이 있고, 한자음에서도 표준음을 가리키는 ‘정음’이란 뜻도 쓰이지만, 훈민정음과 연관된

---

洪允杓(2008), 訓民正音의 ‘與文字不相流通’에 대하여, 李崇寧 現代國語學의 開拓者, 태학사.

문헌에서는 모두 훈민정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음’에 ‘훈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을까? 훈민정음 서문에 보이는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배 이셔도 므춤내 제 쓰들 시러 퍼디 못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嬴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 쥘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너겨 날로 뿌매 便便安한키 하고져 흙 쓰르 미니라”란 말에 ‘백성’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훈민’이란 말을 붙인 것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뜻도 들어 있다.

‘훈민’이라는 말 속에는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이 직접 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 훈민정음을 세종 혼자서 창제한 것인지 신하들인 집현전 학사들과 공동으로 창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御製’라고 하는 의미는 세종이 친히 지었다는 뜻이다(‘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世宗御製’가 뒤에 붙여진 것이라고 해도). ‘御製’, ‘御定’, ‘御撰’ 등이 흔히 쓰이는데, ‘御定’은 임금이 명령하여 지은 것을 말하고, ‘御製’와 ‘御撰’은 임금이 친히 지은 것을 말한다. 『樓板考』의 범례에 “御命撰曰御定 親撰曰御撰”(어명으로 찬한 것은 ‘어정’이라고 하고 친히 찬한 것은 ‘어찬’이라고 한다)란 기록이 있다.<sup>2)</sup> 따라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그 문자 이름인 ‘訓民’에서도 찾을 수 있다. ‘훈민’이란 용어는 주로 임금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철의 ‘훈민가’와 같은 글도 있지만, 그 ‘훈민’은 일부 백성이자 백성 전체는 아니다. 백성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신하가 ‘훈민’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아마도 역적으로 몰렸을 것이다.

‘가르친다’는 뜻의 한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敎’이고 또 하나는 ‘訓’이다. ‘敎’와 ‘訓’은 그 새김은 ‘가르치다’이지만, 실제로 ‘敎’와 ‘訓’은 그 의미 차이가 있다. 즉 ‘敎’는 주로 남자에게, ‘訓’은 주로 여자에게 쓰이던 말이었다. 동치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목활자본 『語錄解』의 뒤에 붙어 있는 『藝海珠塵 駢字分箋』이란 책에 ‘男曰敎 女曰訓’<13a>란 기록이 보인다. 즉 ‘훈’은 이전 시대의 의식에 따라 여자들이나 낮은 사람에게 쓰던 것이었다. 그래서 여

---

2) 안병희(2002), 훈민정음 해례본 3제, 진단학보 93 참조

자에 대한 교훈서들은 대부분이 訓을 사용하여 『內訓』, 『女訓』 등의 단어를 썼던 것이다. 즉 ‘訓’은 수준이 낮거나 신분이 낮은 아랫사람에게 쓰는 한자이었다. 그래서 ‘敎民正音’이 아닌 ‘訓民正音’이란 단어를 썼던 것이다.

결국 ‘정음’과 ‘훈민정음’은 같은 뜻이다. 다만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창제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 (2) ‘正音’의 의미

글자를 창제하였는데, 왜 이름은 ‘정음’, 즉 ‘바른 소리’라고 했을까? 글자 이름이니까 오히려 ‘正文’이나 ‘正字’란 명칭을 붙였어야 할 것 같은데 ‘正音’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음’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훈민정음 언해본과 석보상절 서문의 ‘정음’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석보상절의 서문에서는 ‘정음’은 ‘正한 소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훈민정음 언해본의 ‘訓은 ㅁㄴ칠 씨오 민은 百姓이오 音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 ㅁㄴ치시는 正한 소리라<1446훈민정음언해본,1a>’에 보이는 ‘正한 소리’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렇다면 ‘正하다’란 무슨 뜻일까? 그런데 ‘훈민정음’에서 ‘訓’과 ‘民’과 ‘音’은 각각 ‘가르치다, 백성, 소리’로 주석을 달았지만, 막상 ‘正’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석이 없어서 우리를 더욱 궁금하게 한다. 단지 한자로 ‘正하다’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석보상절 서문에 보이는 ‘우리 나랏 마를 正히 반드기 올히 쓰는 그릴씨’에서 ‘정히, 반드기, 올히’가 그 뜻풀이일텐데, 이것도 역시 명쾌하게 설명하기 힘든 것 같다.

이 ‘정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서문을 잘 살펴 보도록 한다. 첫 문장이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 씨’로 되어 있다. 한문은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이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이다. 즉 여기에 보이는 ‘文字’를 ‘(漢字)’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한자’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과 문자를 혼동한 것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세종은 ‘한자’를 ‘문자’라고 표현했을까? 그 당시에 ‘漢字’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으면 몰라도 앞에서 예를 든 석보상절 서문에 ‘한자’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正音은 正音 소리니 우리 나랏 마를 正히 받드기 올히 쓰는 그릴씨 일후를 正  
音이라 ㅎㄴ니라 就는 곧 因ㅎ야 ㅎ듯 ㅎ ㅼ디니 漢字로 몬져 그를 밍글오 그  
를 곧 因ㅎ야 正音으로 밍글씨 곧 因ㅎ다 ㅎ니라 加는 힘드려 ㅎ다 ㅎ듯 ㅎ  
ㅼ디라 <월인석보1:釋序5b>

‘번역’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한자’로 먼저 만들고 그 한자를 따라 정음으로 만든다는 설명에서 ‘한자’란 단어가 또렷하게 보인다.

따라서 만약에 ‘문자’가 ‘한자’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세종은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 ㅅ’로 쓰지 않고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 漢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 ㅅ’로 써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자’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文字’를 찾아 보면 ‘문자1’과 ‘문자2’가 등재되어 있는데, ‘문자1’이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속어나 成句 또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고, ‘문자2’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인 기호 체계. 한자 따위의 표의 문자와 로마자, 한글 따위의 표음 문자로 대별된다’로 풀이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 등이 다 동일하다.

이전에는 ‘문자’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여 왔을까? 우선 ‘조선왕조실록’에서 ‘문자’란 단어가 쓰인 예들을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譯學之人 不解文字 只解語音者 謂之只通 (譯學을 하는 사람으로서 文字를 해독하지 못하고 다만 語音에만 통하는 자를 只通이라고 이른다.) <세종실록 권49 12년 경술8월 갑술조>

‘不解文字’의 ‘文字’란 단순히 글자란 뜻이 아니라,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글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쓰인 ‘문자’는 특히 ‘語音’과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只解語音者’란 단지 말로서만 의사소통을 할 뿐, 그 내용이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기에 비해 ‘문자’는 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내용을 함께 일컬을 때 쓰는 것이다.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문자’란 단어가 여럿 보이는데, 여기에 쓰인 ‘文字’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隸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若我國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政議者 必曰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 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礙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則爲吏者 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牆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야비한 이언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나 복예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부서나 기회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사운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하여 성리의 학문을 공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오면 수십 년 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이사(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답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세종실록 권103 26년 2월 경자조>

여기에 든 상소문의 예문에는 ‘문자’란 단어가 모두 9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이 9개의 예문에 쓰인 ‘문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글자’란 뜻으로 사용된 것보다 한자로 쓰인 문구들을 의미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글자’란 뜻을 정확히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문자’보다는 ‘字’를 쓰고, 그러한 글자로 구성되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문 문구는 ‘문자’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문자’를 ‘한자’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聖賢之文字’이다. ‘不知聖賢之文字’를 ‘성현의 한자를 알지 못하고’로 번역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聖賢之文字’는 성현들의 글을 담은 ‘한문 문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옛문헌의 이름에도 ‘문자’가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고문헌인 『文字類輯』, 『文字類聚』, 『詩學文字類聚』등에 나타나는 ‘문자’는 ‘글자’란 뜻이 아니라, 한자로 된 성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자’는 원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쓰이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는 ‘글자’란 뜻이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 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성구(成句) 또는 문장’이란 뜻이다. 후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는 오늘날에도 ‘문자 쓴다’거나 ‘문자속 기특하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훈민정음 서문에 등장하는 ‘문자’는 바로 ‘한자로 된 숙어나 成句 또는 문장’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훈민정음 서문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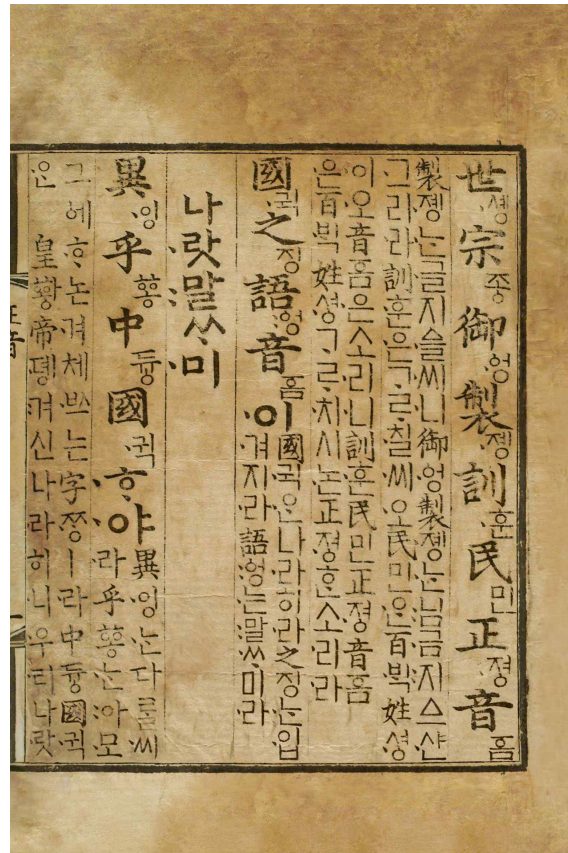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나라 말이) 한문구를 써서 말하는 것과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한문구를 써서 말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능히 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언어생활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가 없어서 말은 우리말을 하였으되, 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한 한문을 써 왔다. 그래서 한문구를 이용하여 말하는 언어생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곧 ‘문자’를 써서 말하기도 하였다. 쓰기생활은 한자를 이용하여 한문으로 썼으나 말하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 예를 훈민정음 서문을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나랏 말싸미 둥귁에 달아’는 쓰기 생활에서는 ‘國之語音 異乎中國’이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말로써 표현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것은 ‘나랏 말싸미 둥귁에 달아’처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로 말하는 것이었다. 일반 백성들은 ‘나랏말싸미 둥귁에 달아’로 말하는데, 지식층은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로 말하는 것이다. ‘나랏말싸미 둥귁에 달아’가 ‘나랏말씀’이고,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가 ‘文字’인 것이다. 따라서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바른 소리가 아니고 ‘나랏말싸미 둥귁에 달아’가 바른 소리인 것이다. 그래서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로 말하지 말고 ‘나랏말싸미 둥귁에 달아’로 쓰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가 없어서 글을 읽을 때 ‘나랏 말싸미 둥귁에 달아’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른 소리를 ‘정음’이라고 하였고,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 역시 ‘正文’이나 ‘正字’가 아닌 ‘正音’, 특히 임금이 지은 정음인 ‘훈민정음’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의 책의 구조가 ‘문자’와 ‘정음’으로 구별되어 있다. 훈민정음 언해본은 다른 언해본들과는 전혀 다른 체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 『훈민정음』 언해본은 석보상절 서나 월인석보 서와 그 언해방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다른 언해본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 『훈민정음』 언해본은 전혀 다른 구성을 보인다.

우선 다음에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을 보도록 한다. (이 사진은 깨끗하게 재구된 사진이다)



첫째 줄에 ‘책의 제목’이 있다. ‘世宗御製訓民正音’이 있고 각 한자 아래 오른쪽에 방점도 표기되어 있는 한자음 표기가 있다.

世·성宗종御·영製製訓·훈민민正·정音음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협주가 있다.

製는 글 지슬 씨니 御製는 님금 지스산 그리라 訓은 ㄱㄹ칠 씨오 民은 百姓  
이오 音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 ㄱㄹ치시논 正훈 소리라

넷째 줄에는 위에 한문과 한글 구결이 달린 대문(大文)이 있고, 그 밑에 협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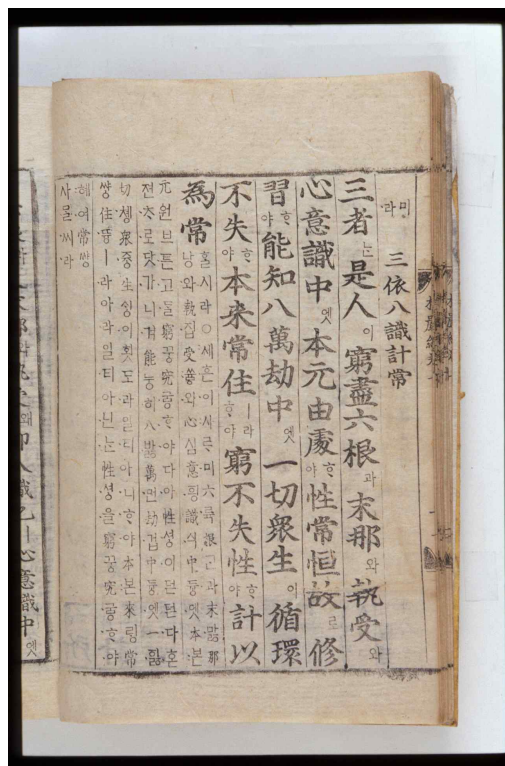
國<sub>국</sub>之<sub>지</sub>장語<sub>장어</sub>:어<sub>어</sub>音<sub>음</sub>이 (國은 나라히라 之는 입겨지라 語는 말쓰미라)

다섯째줄에는 언해문이 있는데, 위의 한 칸을 비워 두고 썼다.

나랏말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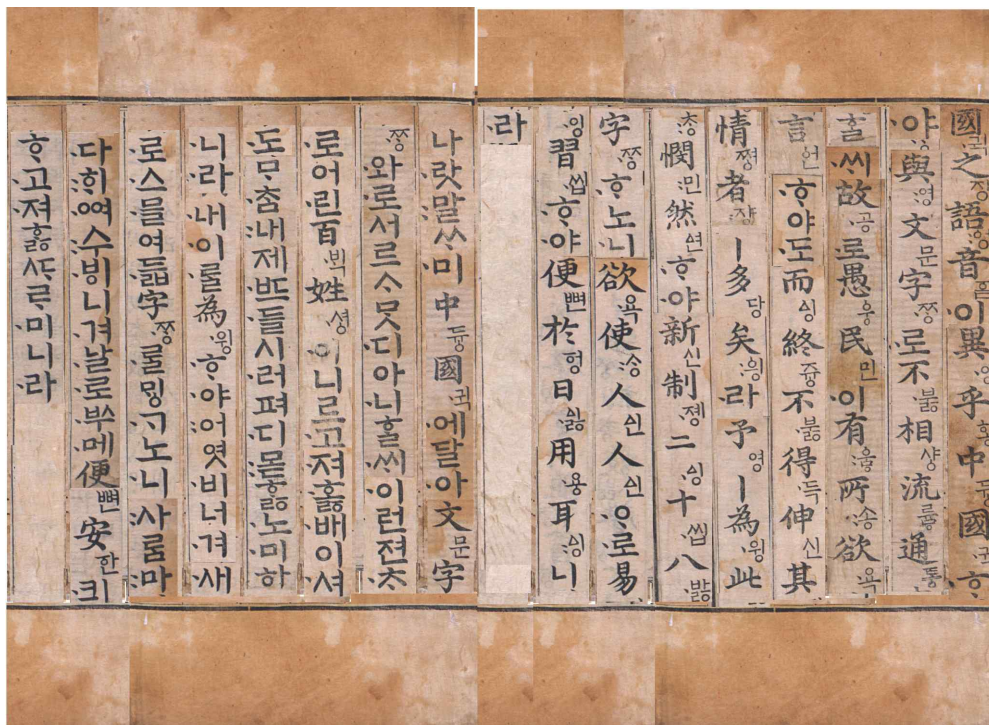
이러한 방식은 반복되고 있다. 즉 ‘異乎中國<sub>이허중국</sub>하야’의 대문(大文)이 있고 여기에 대한 협주 형식의 주석이 나오고 이의 언해문인 ‘中國에 달아’가 나온다.

다른 언해본들의 구성양식은 이와는 다르다. 한문 대문을 모두 앞에 싣고, 그 뒤에 언해문을 싣는 것이 일반적인 책의 체재이다. 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의 『능엄경언해』(활자본)의 사진을 보도록 한다.



앞에 ‘三者는 是人이’로부터 시작하여 ‘計以爲常홀시라’로 끝나는 한문구가 있고 ‘세흔’으로 시작하여 ‘常 사물씨라’로 끝나는 언해문이 있다. 이렇게 한문을 단락으로 나누어 구분한 후에 이의 언해문을 싣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언해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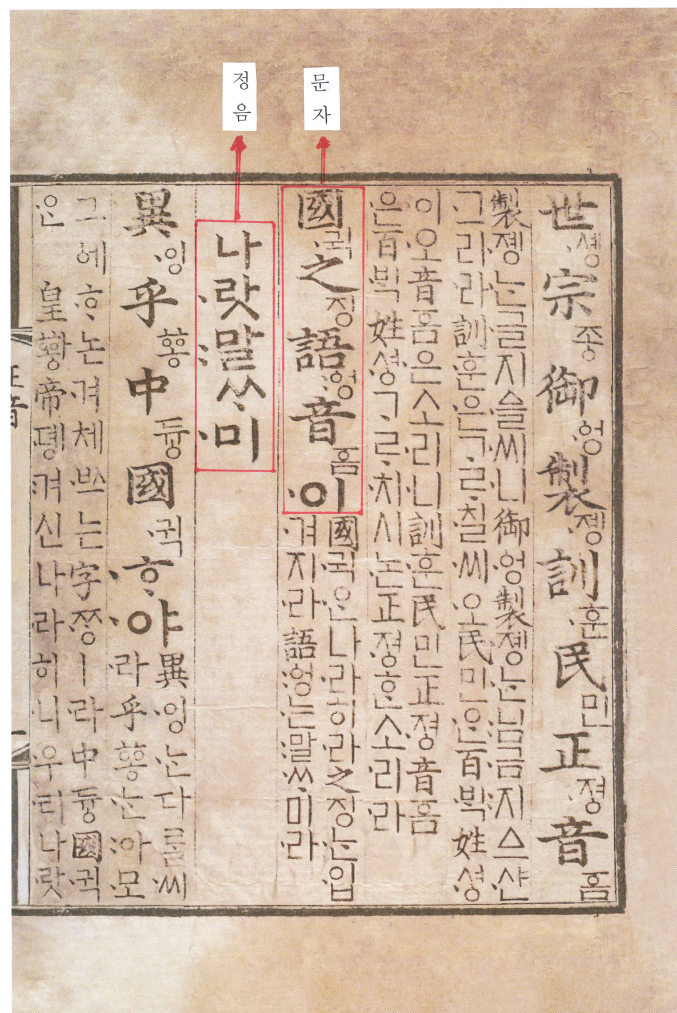
이와 같은 능엄경언해의 양식을 따라 훈민정음 언해본을 다시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본문을 다 싣고 다음에 언해문을 다 싣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 그림은 발표자가 훈민정음 언해본을 재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원래 훈민정음 언해본은 7행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행수를 무시하고 만들었고, 또 조잡하게 만들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단지 그 양식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앞부분이 한문에 한글 구결이 달린 원문이고 뒷부분이 그 언해문이다. 다른 언해본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다 싣고 그 뒤에 언해문을 실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훈민정음을 설명한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훈민정음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체재를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음 사진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國之語音’이 문자이고, 이 ‘문자’를 ‘정음’으로 말한 것이 ‘나랏말싸미’인 것이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었다. ‘훈민정음’과 ‘언문’과 ‘정음’의 관계, ‘정음’의 앞에 ‘훈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글자 이름인데 소리라는 뜻의 ‘정음’을 붙인 이유들이 그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의문이 풀렸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매년 한글날 기념식장에서 훈민정음 서문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아니하므로’로 해석하여 읽음으로써 세종대왕이 소리와 문자를 혼동해서 사용하였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에서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성왕이며 영특한 임금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리와 문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임금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그 당시에는 원래 소리와 글자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 3. 象形而字倣古篆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는 鄭麟趾의 서문(세종 28년)에 나타나는 ‘象形而字倣古篆’에 가장 잘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而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協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되 글자 모양은 고전(古篆)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칠조에 맞고 삼재의 뜻과 이기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인지 서문>

‘象形’과 ‘字倣古篆’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象形’을 원리로 하고 구체적으로 문자의 형태와 그 결합방식은 ‘倣古篆’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서 ‘象形說’은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지만(특히 모음 글자에서), 그래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편이다. ‘象形’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 制字解의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  
ㄴ 象舌附上月𪛗之形 唇音ㅁ 象口形 齒音ㅅ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정음 28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모두 17자다. 아음 ㄱ 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 ㄴ 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을 본뜨고 순음 ㅁ 은 입모양을 본뜨고 치음 ㅅ 은 이 모양을 본뜨고 후음  
ㅇ 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字倣古篆’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매우 구구하다. 앞의 ‘象形而字倣古篆’이라  
는 기록과 훈민정음에 관한 世宗實錄 記事와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8자를 만들  
었으니 그 글자는 고전을 본뜨고) <세종실록 25년 계해 12월 기사>

최만리 등의 상소(세종 26년)에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盡反於古 實無所據  
(이럴 때 혹시 대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언문은 모두 예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  
지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은 비록 옛날의 고전 글자와 비슷합니  
다만 소리로써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최만리 등 반대상소문>

이라는 기록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 ① ‘古篆’의 특징을 方形으로 보아, 훈민정음의 字形이 方形으로 된 것과 연관시킨  
것(유창균, 1966).
- ② ‘字倣古篆’의 ‘古篆’을 ‘蒙古篆’으로 해석하고 파사파 문자와 관련시킨 것(유창  
균, 1974).
- ③ 한자의 구성양식으로 인식하여 ‘起一成文(기형성문)’에 근거를 두었다고 주장  
하는 것(공재석, 1968).
- ④ 한자의 구성양식으로 해석하되, 이것을 六書에 바탕을 두고 해석한 것(김완진,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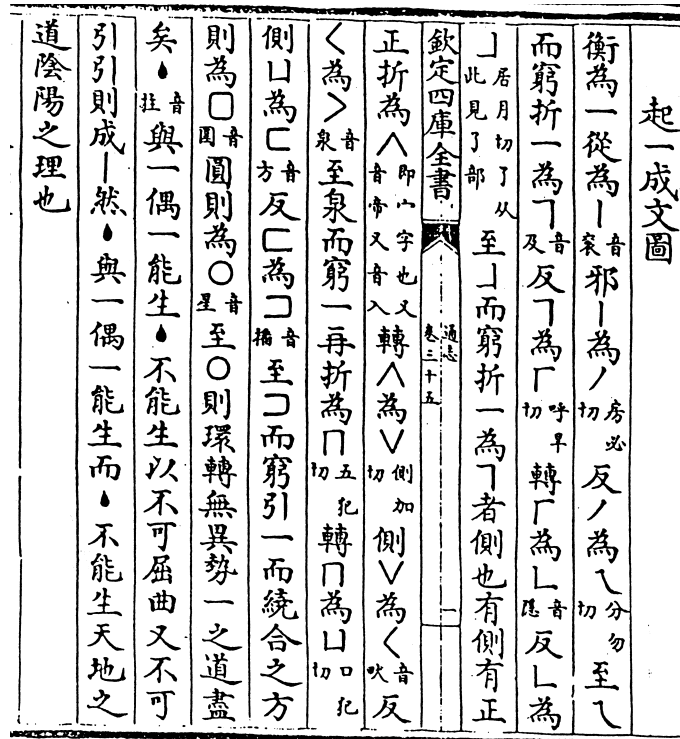
특히 ④의 주장에서는 문자의 창제가 이전의 표기전통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각 자음의 음가를 표기하는 한자의 전서체가 그 자음을 나타내는 단위문자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字倣古篆’의 ‘古篆’을 한자의 篆書體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

### (1) 훈민정음 자모의 형태적 특성과 起一成文圖

‘字倣古篆’과 연관시켜서 훈민정음 문자의 형태적 특성을 ‘方形’에 두어 설명하려 한 일이 있음은 전술한 바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문자의 형태적 특징은 ‘方形’만이 아니다.

훈민정음의 각 자모는 모두 ‘· 一 | / \ □ ○’의 일곱 가지 획[線形]으로 이루어진다(□을 一, |와 연관시킨다면 ‘· 一 | ○ / \’의 여섯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곱 가지 획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자모는 이 선형의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즉 ㄱ은 一 와 |의 조합 등). 그러나 이것은 조합이나 결합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자음 글자나 모음 글자 모두 위의 일곱 가지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이들 일곱 가지 획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컨대 □을 |, 一, |, 一의 순차적인 ‘組合’(또는 ‘結合’)이나 ‘加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선의 ‘變形’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鄭樵(1104~1162)의 六書略(通志 卷34)에 나오는, ‘起一成文圖(기형성문도)’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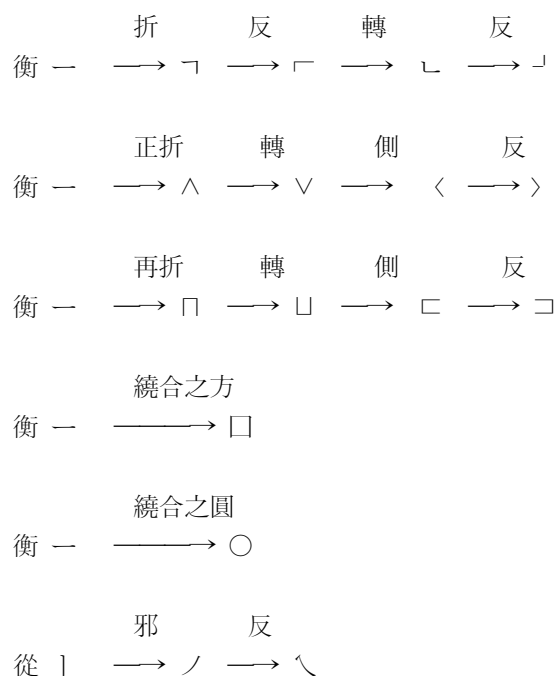


一자로부터 글자가 이루어지는 법칙

가로 그으면 一자가 되고 세로 그으면 | (음은 “곤”이다)자가 된다. |자를 기울어지게 하면 ノ (음은 “빌”이다)자가 되고 ノ자를 뒤치면 ㄴ (음은 “불”이다)자가 된다. ㄴ자에 이르러 멈추었다가 一자를 굽히면 ㄱ (음은 “굽”이다)자가 된다. ㄱ자를 뒤치면 ㄷ (음은 “한”이다)자가 되고 ㄷ자를 뒤엎으면 ㄴ (음은 “은”이다)자가 되며, ㄴ자를 뒤치면 ㄹ (음은 “꺾”이다. 了자가 여기서 시작되니 了부를 보라)자가 되나니 ㄹ자에 이르러 멈춘다. 一자를 굽혀 이루어진 ㄱ자는 굽힘이 한 겹으로 기울어지었다. 기울어짐이 있으면 바름이 있나니 一자를 바르게 굽히면 ㅏ (즉 ㅏ자이다. 음을 또 “제”라 하고 “입”이라고도 한다)자가 된다. ㅏ자를 뒤엎으면 ㅑ (음은 “차”이다)자가 되고 ㅑ자를 기울이면 ㅓ (음이 “견”이다)자가 되며, ㅓ자를 뒤치면 ㅕ (음은 “천”이다.)자가 되나니 천(ㅕ)자에 이르러 멈춘다. 一자를 두 번 굽히면 ㅗ (음은 “엄”이다.)자가 된다. ㅗ자를 뒤엎으면 ㅛ (음은

“검”이다)자가 되고 乚자를 기울이면 匚(음은 “방”이다)자가 되며, 匚자를 뒤치면 ㄷ(음은 “파”이다)자가 되나니 ㄷ자에 이르러 멈춘다. 一자를 연장하여 돌려서 합친 것이 네모나면 口(음은 “위”이다)자가 되고 둥글면 〇(음은 “성”이다)자가 된다. 〇자에 이르면 이리저리 돌리어도 다른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一자로부터 글자가 이루어지는 법칙은 끝난 것이다. •(음은 “주”이다)자와 一자가 짝을 이루는데 一자는 다른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자는 다른 글자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자는 굽힐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는데 연장하면 丨자가 된다. 이와 같이 •자와 一자가 짝을 이루면서도 一자는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있으나 •자가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없음은 천지의 법칙이요 음양의 이치이다.

이 이치에 의하면 한 획(즉 衡을 뜻하는 一)이 여러 가지 변형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글자가 생성됨을 보여 준다.



즉 모든 기본 글자는 一 으로부터 시작되는데, 折(正折, 再折 포함)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反으로 끝난다. 그 중간 과정에 轉, 側, 邪 등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가해진 자형에 다시 적용될 수 있다. 折, 轉, 側, 邪 중에서 折은 나머지의 것과 대립된다. 즉 折은 一 로부터 꺾어서 만드는 것인데, 변형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折을 통하여 이루어진 글자를 상하, 또는 좌우로 회전시켜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折 : 선을 꺾는다.
- ② 正折 :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양쪽으로 45도씩 꺾는다.
- ③ 再折 : 좌우를 동시에 90도씩 꺾는다.
- ④ 轉 : 상하 180도 회전시킨다.
- ⑤ 側 : 상하 90도 회전시킨다.
- ⑥ 邪 : 좌우로 45도 회전시킨다.
- ⑦ 反 : 좌우 180도 회전시킨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이지만, 이 起一成文圖에는 훈민정음 자음의 기본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sup>3)</sup> 이 起一成文圖의 ‘文’은 鄭樵가 그의 七音略序에서 언급한 ‘獨體爲文 合體爲字’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획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文’은 字母 글자를, 그리고 ‘字’는 음절로 되어 있는 문자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훈민정음 자모의 기본자들에 대한 설명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자음
  - 牙音 ㄱ : 一 를 折의 방법으로 만든다.
  - 舌音 ㄴ : 一 를 折, 反, 轉의 세 단계를 거쳐 만든다.
  - 脣音 ㅁ : 一 를 繞合之方의 방법으로 만든다.
  - 齒音 ㄷ : 一 를 正折의 방법으로 만든다.
  - 喉音 ㅇ : 一 를 繞合之圓의 방법으로 만든다.
- ② 모음
  - 天 ㆍ : 與一偶
  - 地 一 : 衡
  - 人 丨 : 從

3) 이 사실을 제일 처음 지적한 것은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로 보인다.

결국 훈민정음의 기본자들은 線形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다.

## (2) ‘古篆’의 다양한 구성법과 훈민정음 자모의 가획법

‘字倣古篆’에서 ‘古篆’은 최만리의 지적대로 ‘古之篆文’이다. 篆書는 옛날의 서체이기 때문에 古篆이라고 부른다.

經文註疏 皆以古篆書之(國朝漢學師承記, 江聲)

한자에서 가장 오래된 서체로서 여러 시대를 거쳐 왔기 때문에 전서는 다른 팔체(八體: 大篆 小篆 刻符 虫魚 署書 殳書 隸書 是也 或曰 篆籀 八分 隸書 章草 草書 飛白 行書<廣才物譜>)에 비해 단일한 서체가 아니다. 篆書에 대한 『廣才物譜』의 설명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篆 전각 史籀所作 有大篆小篆鳥篆龍篆奇字篆等三十六體.

전서체에는 36체가 있어서 한 글자에 대한 전서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壽福 병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壽’와 ‘福’자를 각각 다른 전서체로 100개씩 써놓은 것이다. 따라서 전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한자에 다양한 서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하나의 전서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전서를 생성해 낼 때에도 그 서체상에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전서를 생성해 내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전서에서 다양한 다른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因文成象圖’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鄭樵의 ‘起一成文圖’ 바로 뒤에 이어져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文’으로부터 ‘象’을 이루는 법칙이다. 즉 하나의 ‘文’으로부터 다른 문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有到取型為丁下到宮繫為旱厚到乎子為肉地骨切  
 眉首為鼎鳥到了了為乙鳥有反取反豈忠為豈反止  
 人為山凡反山凡為少珍反見為覓呼態切反止止為山  
 提反亮大為炎先音既反余割切為乚弋戈支反可可為世  
 晉丁有向取向父為甲子向后后司司向尸左為  
 反右向丑凡刻為匡居五反向火為川律向𠂔丑亦反為之  
 丑上向刀刀為匕匕向身身為貞永向弓居缺反為己居月反  
 反向片片為凡凡向丿永為承反音承向？雲為已有相  
 欽定四庫全書  
 向取戶戶相向為門門巨巨相向為冨音邑已已相向為  
 𡗗鄉又卷𡗗相向為𡗗𡗗有相背取止相背為𡗗蒲挺反  
 相背為𡗗𡗗已已相背為𡗗弗𡗗是兒反相背為𡗗𡗗有  
 相背向取向為𡗗𡗗背為𡗗𡗗向為𡗗𡗗背為𡗗𡗗向  
 為門門背為𡗗𡗗向為𡗗𡗗背為𡗗𡗗有近取取天天  
 於三乾取𡗗坤字於三坤取川水於三坎取火火於  
 三離取中中於中中取六九於七七取十十於八八取象  
 升於焉手取耳耳於自鼻取自於自目取隸隸於龜龜

取發於<sub>三</sub>有遠取取山於<sub>三</sub>取需於<sub>三</sub>取風於<sub>三</sub>  
 三<sub>其</sub>取澤於<sub>三</sub>取四五六七八九十於一二三取千  
 於百取萬於千取毛於髮取男於女有加取一加一為  
 二二加一為三二加二為三百加百為百反力交加交  
 為<sub>楚</sub>山加山為<sub>山</sub>水加水為<sub>林</sub>有減取  
 減二十為廿<sub>入</sub>減三十為卅<sub>反</sub>減四十為卅<sub>反</sub>減  
 三十年為<sub>世</sub>又有減<sub>川</sub>為<sub>川</sub>減<sub>川</sub>為<sub>川</sub>亦是  
 減法有微加減取加<sub>一</sub>為延減<sub>一</sub>為延<sub>反</sub>加一為甫  
 欽定四庫全書  
 通志  
 十一  
 減一為<sub>甫</sub>加<sub>一</sub>為<sub>甫</sub>減<sub>一</sub>為<sub>甫</sub>加<sub>一</sub>  
 為<sub>王</sub>減一為<sub>王</sub>有上取上向左為<sub>米</sub>向右為<sub>米</sub>  
 左為<sub>少</sub>向右為<sub>少</sub>有下取下向右為<sub>少</sub>向  
 中交為<sub>交</sub>不交為<sub>交</sub>有方圓取圓  
 方<sub>方</sub>有曲直取曲<sub>曲</sub>為<sub>曲</sub>  
 直<sub>直</sub>有離合取離人<sub>人</sub>為人<sub>人</sub>有從衡取  
 衡<sub>衡</sub>為一從一為一有邪正取正<sub>正</sub>為十邪十為又  
 順逆取順理為<sub>順</sub>逆理為<sub>逆</sub>有內外中間取<sub>中</sub>相  
 內為<sub>中</sub>相外為<sub>外</sub>相間為<sub>間</sub>



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 |         |         |          |           |
|---------|---------|----------|-----------|
| (1) 到   | (2) 反   | (3) 向    | (4) 相向    |
| (5) 相背  | (6) 相背向 | (7) 近    | (8) 遠     |
| (9) 加   | (10) 減  | (11) 微加減 | (12) 上    |
| (13) 下  | (14) 中  | (15) 方圓  | (16) 曲直   |
| (17) 離合 | (18) 從衡 | (19) 順逆  | (20) 內外中間 |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 20 가지 중에서 그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예는 한두 개씩만 제시한다).

1	到	상하로 뒤집어 놓는다	高→皐	
2	反	좌우로 뒤집어 놓는다. 형체만 뒤집어 놓는다.	貞→貞	
3	向	좌우로 뒤집어 놓는다. 의미를 반의어로 바꾼다.	后→司	
4	相向	동일한 글자를 좌우로 서로 마주 보게 놓는데, 正字가 왼쪽에 온다. 뜻이 거의 동일하거나 뜻이 더 커지거나 한다.	戶→門	
5	相背	동일한 글자를 좌우로 서로 마주 보며 놓는데, 정자가 오른쪽에 놓이고 왼쪽에는 동일한 글자를 그것과 대칭이 되도록 놓는다. 위미관계도 상관 없다.	乚→ㄣ	
6	相背向	상향으로 만든 글자를 상배자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ㄣ→ㄣ	
7	加	가획을 말한다. 동일한 글자를 겹치는 것도 加라고 한다.	上下	二一→三
				二二→三
			左右	山山→山
				百百→百
8	減	획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二十→廿	
9	微加減	획이 작은 것을 늘이고 줄이는 것이다.	王→土	

그렇다면 이 전서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나 제자 방법과 연관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제자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 (3)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제자 방법

훈민정음은 제자 원리를 정하고 이 제자 원리에 따라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곧 제자 방법이다.

제자 원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象形而字倣古篆’이다. 제자원리에 비해 이 원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드는 제자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다.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의 기본글자는 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기본 글자 이외의 글자는 가획과 합용과 합성, 그리고 연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훈민정음은 상형, 가획, 합용, 합성, 연서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sup>4)</sup>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간략히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왜냐 하면 이 제자 방법과 ‘자방고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형	가획	합성	연서	합용	
					합용병서	각자병서
초성자	ㄱ ㄴ ㄷ ㅅ ㅇ	ㄷ ㄴ ㅈ ㅎ ㅋ ㅌ ㅍ ㅊ ㅎ		병병 풍 풍	ㅅㅈ ㅅㅊ ㅅㅊ ㅈㅈ ㅈㅊ ㅈㅈ ㅈㅊ ㅈㅈ ㅈㅈ ㅈㅈ	ㄱㅈ ㄴㅈ ㅈㅈ
중성자	· ㅡ ㅣ		ㄱ ㅌ ㅌ ㅌ ㅈ ㅈ ㅈ ㅈ		나 파 거 꺾 이 기 니 비 기 기 피 비 꺾 기 내 게 배 꺾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의 기본자는 상형에 의해서 만

4) 임용기(2004)에서는 이처럼 제자원리와 제자방법을 구분하고, 제자원리와 제자방법에 ‘상형’을 포함시켜서, 제자원리의 ‘상형’을 ‘상형1’로, 그리고 제자방법의 ‘상형’을 ‘상형2’로 명명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들어졌고, 그 이외에 훈민정음 28자에 속하는 글자들은 ‘加劃’과 ‘合成’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이외의 글자들은 ‘合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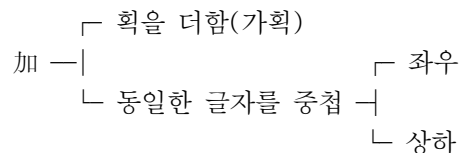
#### (4)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과 전서의 구성 방법

그렇다면 훈민정음의 제자방법과 ‘因文成象圖’에 보이는 전서의 구성방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 ① 자음 글자

우선 자음을 만드는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因文成象圖’에 보이는 방법 중에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연관된 방법은 ‘加’와 ‘微加減’의 방법으로 해석된다.

‘加’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획을 더하는 것과 글자들이 병렬되는 것을 다 포함한다. 상하로는 획을 더하기도 하고 동일한 글자를 병렬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한 획을 더하는 것도 ‘加’이고, 동일한 글자를 중첩시키는 것도 ‘加’이다. 따라서 ‘加’는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은 이를 정밀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훈민정음의 加劃 및 竝書와 連書가 모두 ‘加’인 것이다. 한 획을 더하는 방법을 ‘加劃’이라고 하였고, 글자들이 중첩될 때 좌우로 병렬되는 것을 ‘合用’이라고 하였으며, 상하로 다른 글자를 합친 것은 ‘連書’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에서는 상하로 동일한 글자를 중첩시키는 방법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因文成象圖의 ‘加’와 훈민정음 제자방법을 비교하여 표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5) 因文成象圖의 ‘加’에는 좌우와 상하로 다른 글자를 병렬시키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전서를 만들 때에는 주로 동일한 의미나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因文成象圖의 ‘加’		훈민정음 제자 방법	
방법	예	방법	예
가획	二加一爲三	가획	ㄷ→ ㅌ 등
중첩	좌우 山加山爲岫	합용	ㄱ ㄷ ㅁ ㅅ ㅈ 등(각자병서)
	상하 二加二爲三		
병렬	좌우	합용	ㅅ ㅈ ㅊ 등(합용병서)
	상하	연서	ㅅ ㅈ ㅊ ㅊ 등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훈민정음 자음 글자 17자의 가획법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들어난다. 즉

- ① 기본자모(ㄱ ㄴ ㄷ ㄹ ㅁ)의 위, 아래, 가운데에 가획한다.
- ② 가획은 가로로 하는 방법과 세로로 하는 방법이 있다.
- ③ 가로로 가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선의 크기만큼 가획을 한 반면에, 세로로 가획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선 길이에 비해 반 정도의 길이로 가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획법의 성질에 따라 재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上에 가획		中에 가획		下에 가획		중첩
기본자	1차 가획자	획	중	획	중	획	중	
ㄱ				ㄱ				ㄱ
ㄴ		ㄴ						ㄴ, ㄷ
	ㄴ			ㄷ				
ㄷ			ㄷ					ㅁ
	ㄷ						ㅁ(ㄷ)	
ㄹ		ㄹ						ㅅ, ㅈ
	ㄹ		ㅅ			ㅅ		
ㅁ		ㅁ						ㅇ, ㅎ
	ㅁ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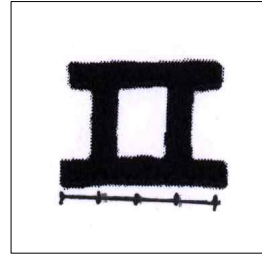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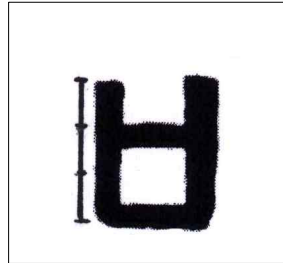
이 자음 글자 중에서 특이하게 만든 것은 ㅂ ㅅ ㅈ ㅊ ㅋ 이다. ㅂ 은 ㅁ 에서 세로획의 위 두 꼭지를 위로 가획한 것이어서, 두 번 가획한 것이며, ㅅ 은 ㅂ 을 아래로 두 세로선을 가획한 다음 우(또는 좌)로 90도 회전시켜 만든 것이다. 이것을 ㅂ 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ㅅ 으로 옆으로 눕혀서 ㅅ 으로 만든 것은 아마도 글자체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ㅈ ㅊ ㅋ 은 기본자 ㄴ ㅅ ㅇ 을 가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미 ㄴ ㅅ ㅇ 은 가획자가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서는 이들을 異體字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가획 과정에서 문자의 변형이 일어난다. ㄱ → ㅋ, ㅅ → ㅈ, ㅇ → ㆁ 등은 기본글자인 ㄱ ㅅ ㅇ 에 변화가 없지만 ㄴ → ㄷ, ㅁ → ㅂ 등과 ㅅ ㅎ ㅇ 등은 선의 길이에 변화가 일어난다. 즉 ㄴ 에 一 를 가획할 때 ㄴ 의 세로선의 길이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며 ㅁ 에서 ㅂ 으로 가획할 때에도 ㅁ 의 좌우 세로선의 길이만큼 가획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로선의 반만큼만 가획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ㅈ → ㅊ, ㆁ → ㅎ, ㅇ → ㆏ 에서 세로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세로선이 마치 꼭지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짧아졌다.

이처럼 가로 가획선에 비해 세로 가획선을 그 길이의 반 이하의 길이로 한 것은 篆書의 微加減法 중에서 微加法에 기인한다. 微加減法은 선의 길이가 작은 것은 늘이고 긴 것은 줄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微加減法을 이용한 字形은 오늘날 그 자형에 의문을 품고 있던 ㄷ, ㅂ, ㅅ 글자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ㄷ 글자는 원래 ㄴ 에 한 획을 가획한 것이어서, 그 원칙대로 문자를 만든다면 ㄷ 글자의 가로선의 길이와 세로선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에서 오른쪽 세로선이 없어진 형태이어야 하는데, 세로선이 가로선의 반 정도가 줄어든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소위 微加減法에서 微減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로선의 길이를 줄인 것이기 때문이다.

ㅂ 글자는 ㅁ 에 세로로 두 번 가획한 것인데, ㅁ 글자의 세로선만큼 가획한 것이 아니라 세로선의 반 정도만 가획한 것이다. ㅅ 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자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왼쪽과 아래쪽에 선을 긋고 세로선의 길이를 배분해 본 자료를 보면 확실하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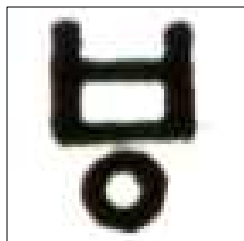


이러한 것은 각자병서에서도 나타난다. ㄱ ㄴ ㅁ ㅂ 의 가로선의 길이를 반 정도로 줄인 것이다. 창제 당시의 각자병서의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ㄴ	ㅁ	ㅂ	ㅅ	ㅇ
ㄱ	ㄴ	ㅁ	ㅂ	ㅅ	ㅇ

자음자 중에서 ㄴ은 기본자 ㄴ 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할 때, 하나의 선이 가획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ㄴ 에서 가획한 ㄷ 을 다시 가획한 것으로 보인다. 즉 ㄷ 에 ㄱ 을 微加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ㄴ 의 세로선은 가로선의 길이의 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ㄴ, ㅇ, △ 이 이체자이지만, 실제로는 가획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은 微加減法 때문이다.

ㅂ 의 자형도 이 미가감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ㅂ 자에 비해 그 아래에 붙여 쓴 ㅇ 글자는 원래 글자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를 보인다. 다음의 그림을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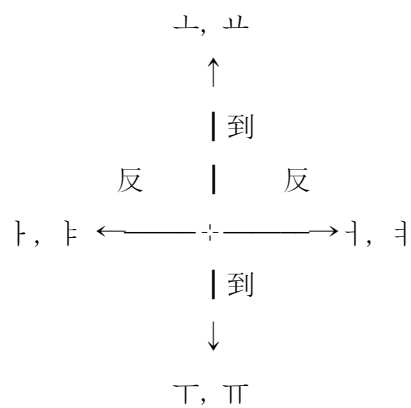
또한 ‘相背’의 방법으로 ㄱ 을 ㄴ 으로 만들 수 있다.

## ② 모음 글자

모음 글자는 서로 다른 기본자들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기본자인 ‘·, 一, |’를 합성하여 ‘ㄴ, ㅏ, ㅓ, ㅑ’를 만들고, 다시 이 ‘ㄴ, ㅏ, ㅓ, ㅑ’를 토대로 하여 ‘ㅕ, ㅗ, ㅛ, ㅛ’를 만들었다.

그런데 전서를 만들 때의 방법에 따르면 모음은 주로 ‘到’와 ‘反’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因文成象圖의 방법		훈민정음 제자 방법	
방법	예	방법	예
到	到上爲丁(下)	합성	ㄴ → ㅓ, ㅏ → ㅛ,
反	到音爲	합성	ㅏ ↔ ㅑ, ㅗ ↔ ㅛ
		합용	좌우 나 파 거 꺾 · ㅓ ㅑ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상하	! ㅓ



| 와 一 에 · 가 합성될 때에 | 와 一 의 가운데에 합성되는 이유도 到와

反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고는 상하나 좌우로 뒤집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字倣古篆’의 ‘古篆’을 구성하는 방식은 훈민정음 제자에서 주로 자음 글자를 만드는 방식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서 구성 방식의 ‘加’와 ‘微加減’의 방법은 자음 글자의 제자방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到’와 ‘反’의 방법은 모음 글자의 제자방법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은 실제로 전서의 구성 방식보다 더 정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서 구성 방식의 가획과 동일한 글자를 좌우로 중첩시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글자들을 상하 좌우로 병렬시키는 방법을 더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한자의 篆書를 만드는 방식과 같다고 하여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字倣古篆’이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라고 일컬어지는 ‘象形而字倣古篆’ 중 ‘字倣古篆’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훈민정음의 기본자들은 모두 線形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이외의 글자들은 기본글자에 加劃法을 적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즉 각 글자는 ‘변형’과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들었고, 음절글자는 조합의 방법에 따라 만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소위 加劃之義인 ‘不厲 → 厲 → 稍厲’에서 보는 것처럼 形과 聲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관련을 짓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훈민정음에서 발표자가 의문으로 삼았던 문제, 즉 문자 이름이 왜 ‘정음’이며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에 ‘나랏말싸미’와 ‘문자’를 대비시킨 이유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인 ‘象形而字倣古篆’에서 ‘字倣古篆’이 무슨 의미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기 방식이 결국은 훈민정음 창제에서 완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자생활은 상당히 많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즉 한자를 빌



어서 한문을 사용하면서, 그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쓰기도 하고(‘壬申誓記石’ 등), 한문에서 어휘부는 그대로 두고 형태부를 한자를 빌어 표기하는 방식으로(‘吏讀’ 등), 그것이 다시 音讀口訣과 釋讀口訣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석독구결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방법이 훈민정음의 창제인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 어문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방식을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姜信沆(1994), 增補板 訓民正音 研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姜信沆(2003), ‘正音’에 대하여, 韓國語研究 1, 한국어연구회.  
 공재석(1968), 한글 古篆起源說에 대한 한 고찰, 우리문화 2집.  
 金敏洙(1957), 註解 訓民正音, 通文館  
 김완진(1983), 훈민정음 제자 경위에 대한 새 고찰, 김철준 박사 회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김완진(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박지홍(1988), 국역 훈민정음, 신상순 외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所收.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유열(1948), 풀이한 훈민정음  
 유창균(1966),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진단학보 29, 30.  
 李觀洙(1995), 訓民正音 新研究, 보고서.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  
 안병희(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 서울신문사.  
 洪允杓(2005),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 46.  
 洪允杓(2008), 訓民正音의 ‘與文字不相流通’에 대하여, 李崇寧 現代國語學의 開拓者, 태학사.